

##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면접 호남 野3당 주내 통합 선언

### 뉴스초점 - 여야 총선체제 돌입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대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호남 기반 정당들의 통합과 안철수 신당 창당이 구체화되는 등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예비후보자 면접이 시작되는 등 이달 중순에는 여야의 대결 구도가 보다 명확해지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진입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 4면>

우선 지지부진했던 보수 진영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기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와 새로운 보수당의 구심점인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및 합당 추진 선언이 동력이 되고 있다. 황 대표는 고심 끝에 지난 7일 “종로를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고 종로 출마를 선언, 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유 의원은 9일 “보수가 힘을 합쳐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을 교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자유한국당과의 신설합당 추진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최종 합당까지는 어느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오는 20일 이전 보수대통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수대통합이 가시화된다면 진보 색채가 강한 호남에서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민주당 지지세 접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보수 진영 통합 급물살

#### 안철수 '국민당' 창당

#### 3당 통합 호남 경쟁력 주목

#### 민주, 당원명부 유출 징계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의 통합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당장, 10일 각 당의 협상 대표들이 참여하는 통합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이번 주 내에 통합을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이 현실화되면 28석(바른미래당 17석, 대안신당 7석, 평화당 4석)의 원내 3당이 된다. 안철수계 의원 7명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더라도 21석을 확보할 수 있어 이번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게 된다. 통합이 마무리되면 청년, 소상공인, 전문가 집단 등 외부 세력과의 2차 통합을 통해 '호남'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합 방식과 지도체제를 놓고 이견이 감지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3당 통합이 이뤄진다면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 경쟁력을 갖춘 일부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판세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도권 박빙 승부처에서 변수로 부상하는 등 전체 총선 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안철수 전 의원 측도 신당의 당명을 '국민당'으로 결정하는 등 신당 창당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9일 오전에는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안철수 전 의원을 선출하는 등 창당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9일부터13일까지 닷새 동안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예비 후보 47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이번 면접이 마무리되면 경선 지역 및 단수 공천 지역, 전략공천 지역 등이 가닥잡힐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총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이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한 것을 확인하고 경선 과정에 자격 박탈이나 감점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성진(광주 광산구), 배종호·우기중(목포), 신정훈(나주·화순) 예비후보 등이 당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자격박탈이나 감점(10~15%)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전남 신종 코로나 이번주가 고비



'마스크' 숨막힌 일상 휴일인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한 광주시민들이 결혼식장, 택시, 나들이길 등을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개인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3일동안 추가 확진자 없어 의심자 85명 모두 음성 판정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던 광주·전남에서 사흘동안 확진자 발생이 멈췄다. 광주·전남 보건 당국은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오는 17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2·6·7·14·15면>

9일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 내 확진자는 광주 2명, 전남 1명 등 3명이다.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 격리자는 광주 408명, 전남 72명 등 480명이다. 의심환자 및 유증상자는 광주 34명, 전남 51명 등 85명이었으나 모두 증상이 없고 음성판정 등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

가족과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여성 A(42·광주시 광산구)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이자 광주에선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다음날인 5일에는 딸(20·18번째)이, 6일에는 나주에 사는 오빠(46·22번째)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번 환자의 접촉자 수는 308명에서 이날 현재 417명으로 증가해 3, 4차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내 '슈퍼 전파'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다행히 사흘이 지나도록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보건 당국은 이번 주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이미 격리된 사람으로부터 나올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 내 상승세도 주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특히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오는 17일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1차 방어'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방역대책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다.

A씨와 접촉한 뒤 고·저 위험군으로 분류돼 각각 광주21세기병원(24명)과 광주소방학교(36명)로 격리조치된 시민들은 잠복기가 끝나는 17일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18일 0시 격리 해제된다.

광주시는 일단 '1차 방어선'으로 여겨지는 17일까지 A씨 모녀가 입원한 병원과 주거지 인근 399개 어린이집을 비롯한 87개 유치원을 휴원조치 했다.

한편 이날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27명이며 3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의심환자는 888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담양군수 “추월산에 사찰 건립 검토하라”

### 군비로 특정 종교 지원 논란 주민들·종교계 “황당하다”

담양군수가 추월산 입구에 사찰 건립 부지 조성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다. 인근 장성·곡성·구례를 찾는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유명 사찰을 방문하는 데서 착안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특정 종교시설을 유치·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찰을 건립한다고 관광객이 몰려올 것인지 등 객관적 지표가 없어 무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최형식 담양군수는 추월산 관광단지 상가 뒤편 공터에 사찰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남도기념물인 추월산에 전통사찰 가람배치를 접목한 사찰을 건립해 마음의 안정과 선(禪) 수행의 중심지로 담양 관광의 변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 사업은 최 군수의 지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 백암사, 구례 화엄사, 곡성 태안사 등 담양 인근 지역의 경우 국내 유명 사찰이 있어 방문객들이 줄을 잇는데 반해, 담양은 명산 추월산이 있는 데도 사찰이 없어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현황 조사와 사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는 3보 사찰(해인사·통도사·송광사) 등 전통사찰의 가람 배치 연구, 건립 위치 선정 및 토지 현황 조사, 문화재보호법·관광진흥법 등 사찰 건립에 따른 법규 검토 등이다. 담양군은 조만간 군비를 들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불교계에 사찰 건립(유치)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주민들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종교계 인사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은 특정종교에

편향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면서 “담양군이 예산을 들여 종교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종교에서도 관련 시설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사찰을 건립한다고 해서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백암사·화엄사의 경우 단순 종교시설이 아니라 천년고찰인 까닭에 관광명소가 됐다는 것이다. 사찰을 건립한다고 관광객이 몰려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전통사찰 건립은 관광객 유치 방안 중 하나”라며 “직접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개발해 투자유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문화 흐르는 강진시문학박기념관 ▶18면



### 3·1 마라톤을 뚫다 - 김기출씨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리스토퍼 및 전극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리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